

고하선생의 자유민주주의 사상과 그 현재적 의의

박찬욱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교수)

1. 머리말

이 글은 고하 송진우 선생의 탄신 120주년을 맞아 거행하는 추모행사에서의 강연을 위해 준비되었다.¹⁾

고하 동상 병풍석에 새겨진 일대기에서 압축적으로 표현된 바와 같이 고하는 민족주의, 민주주의, 민생주의, 민문(民文)주의 사상을 토대로 삼아 독립된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투쟁하였다.²⁾ 일제하에서 한민족의 독립을 위해 애쓴 고하 사상은 한마디로 말하면 민족주의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 내용을 살펴볼 때에 민주, 민생, 민문을 동반하여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 글의 목적은 고하의 민족주의 사상과 병행하는 자유민주주의 사상, 그리고 자유민주 사상에 입각했던 고하의 실천에 대하여 살펴보는 것이다. 필자는 고하가 일관되게 자유민주주의사상을 견지한 민족지도자로서 일제 하 교육·언론 활동과 해방 직후 건국을 위한 활동을 통해 꾸준히 한민족의 자유민주주의 실현을 지향했음을 강조하고자 한다. 고하가 흥탄으로 쓰러진지 65년이 된 이 시점에서 그분의 자유민주주의 사상과 실천을 되새겨 보면서 고하가 선견지명을 가지고 신념과 원칙을 지키려했던 지도자였음도 부각시키고자 한다.

해방 직후 고하가 피살되던 당시 한민족은 일제의 억압으로부터 벗어났지만 앞날의 운명이 풍전등화처럼 매우 불확실했다. 한반도는 점차 미소대결의 중심무대가

1) 이 글의 필자는 현대한국정치사를 전공으로 하는 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역사적 사실을 밝히거나 기존 연구와 다른 해석을 제공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지 않다. 필자는 이 글에서 고하의 생애와 사상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논의한 대표적인 연구업적과 자료집을 토대로 21세기 초 이 시점에서 고하의 자유민주주의 사상을 되새겨 보고자 한다. 필자는 김학준, 『고하송진우평전: 민족민주주의 언론인·정치가의 생애』 동아일보사, 1990과 고하선생전기편찬위원회, 『거인의 숨결: 고하송진우관계자료문집』 동아일보사, 1990에 크게 의존하였다. 또한 고하송진우선생기념사업회 홈페이지(www.goha.or.kr)에 올려 있는 이정식, 김학준, 심지연, 이종은, 김용호, 손문호, 이완범, 이철순, 정진영, 정진석 교수의 글들을 참조하였다. 그 중 특히 이정식, “고하의 혜안” (2003년 고하 탄신 113주년 추모식 강연원고)과 김학준, “21세기 태평양 시대 준비한 선각자” (1996년 고하 탄신 106주년 추모식 강연원고)에 주목하였다. 필자는 학술논문이 아닌 이 글의 성격상 참고한 글들을 세세히 인용하지는 않는다.

2) 고하는 “정치적인 독립을 달성하기 위하여” 민족주의, “겨레의 자유와 권리를 신장하기 위하여” 민주주의, “백성의 경제적 자립을 위하여” 민생주의, “우리 민족의 문화적 독립을 위한” 민문주의를 신봉하고 추구하였다.

되어갔다. 북한에 진주한 소련군은 친소 단독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계획을 신속히 진행시켰다. 남한 지역에서는 미군정 하에서 좌우 대결이 심화되고 있었다.

고하 선생이 가신 지 예순 다섯 개 성상이 지난 오늘의 세계는 판이하게 달라졌다. 소련은 붕괴했고 공산주의 실험은 실패로 돌아갔다. 한반도 남쪽의 대한민국은 경제적으로 번영을 이룩하고 정치민주화에도 성공했으며 국제적 위상을 높여가고 있다. 반면 북한 주민들은 경제적 피폐와 정치적 강압을 벗어나지 못하고 국제적으로는 거의 고립된 체제에서 살고 있다.

이 시점에서 자유민주주의를 믿고 이를 실천하려고 했던 고하의 노선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우리는 고하가 한민족의 장래에 대하여 해안을 가지고 고투한 지도자였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2. 고하의 자유민주주의 사상

고하는 신학문에 접하면서 점차 자유민주주의, 즉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민주주의 사상을 수용하게 되었다. 고하는 한말 위정척사파 계열의 성리학자인 기삼연(奇參衍)의 영향을 받았지만, 그의 부친 송훈(宋薰)의 영향으로 만 15세 이후 신학문에 접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18세 때 인촌과 함께 일본에 가기 전 대한협회의 파견원이었던 한승리(韓承履)를 만나게 되었는데 이 당시부터 주권재민사상을 배우게 되었다고 짐작된다.³⁾

그런데 고하가 자유민주주의를 비롯한 새로운 사조와 세계정세의 동향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일본 유학이 계기가 되었다. 고하는 20세 되던 해인 1910년 4월 와세다대학 고등예과에 입학하게 되었다. 그해 8월 합방조약 체결이 임박했다는 소식에 충격을 받아 학업을 일시 중단하고 귀국했다가 이듬해 메이지대 법과로 전학하였다. 그리고 1915년 메이지대를 졸업할 때까지 자유민주사상을 깊이 배우고 또한 설파하였다. 당시 유학생 친목회의 회보인 『學之光』에 실렸던 “사상개혁론”에서 고하는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인 개인의 자유를 주창하였다.

“사상개혁론”에서는 다섯 가지 개혁이 강조되었다. 첫째는 “孔敎打破와 國粹發揮”이다. 고하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공교는 전제사상의 단서니 ... 현자정치를 창도하니 吾人 인류가 정치적 동물이 되는 원리에 背馳될 뿐 아니라 ... 민주사상이 팽창하여 자치권리의 평등정치를 실현하는 현대조류에 不適할지며 ... 인류평등의 진리를 고조하며 사상자유를 특색을 발휘케 하는 문명이상이 반대될 지로다. ... 공교타파는 자아보호의 정당방위요 시대요구의 긴급사무라.”

둘째, “가족제의 타파와 개인자립”의 추구이다. 여기서 타파해야 할 가족제는 혈연을 배타적으로 강조하는 문벌중심주의를 말한다. 이러한 가족제는 가문을 넘어서 보다 넓은 사회로 향하지 못하게 하여 “개인권리가 존중되고 국가위력이 팽창한 현대에 ... 사회발전에 장애물이” 된다. 따라서 “개인은 가족선을 경유하여 사회에 도

3) 김학준, 『평전』, 41.

착할 것이 아니라 직선으로 사회를 관통”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강제연애의 타파와 자유연애의 고취”이다. 고하는 “강제연애는 계급결혼의 惡果”와 “조혼의 말폐(末弊)”를 가져와 개인의 자유와 행복을 파괴하고 사회의 발전에 해악을 미친다고 보았다. 그리고 넷째, “허영교육의 타파와 실리교육” 마지막 다섯째, “常識實業의 타파와 科學實業의 喚興”이 주장되었다.⁴⁾

고하는 1932년 『삼천리』 잡지 4월호에 게재한 글에서 개인의 자유를 다음과 같이 예찬하였다:⁵⁾

“사람으로서 자유권이 없으면 우상이며 노예이다. 환언하면 인격의 내용은 자유의 사가 중요한 요소이다. ...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이전되는 水石이 아니며 또한 타력에 의하여만 준동하는 금수(禽獸)도 아니다. 적어도 피가 있고 눈물이 있고 또한 그 중에도 가장 영묘한 자유적 심리를 가진 사람이다. ... 차라리 자유를 구하여 얻지 못하면 죽음을 구하여 얻을 것이다. 이 곧 사람이 사람된 본령을 발휘하는 것이 아닌가, 자유없는 곳에 행복이 없으며 환희가 없으며 향상이 없으면 발전이 없는 것이다.”

고하는 위와 같이 개인의 자유, 법적·정치적 평등, 기회균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믿는 자유주의자였다. 그런데 고하가 말하는 자유는 외부의 강제와 간섭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하는 소극적 자유(negative freedom from something)에 그치는 것인가?

바로 위에서 언급된 『삼천리』 잡지의 글은 “자유권과 생존권”이라는 제목 아래 써졌다.⁶⁾ 이 글은 개인의 능력을 발전하게 하는 자유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인간이 사람됨을 잃지 않기 위한 조건으로서 확보되어야 할 생존권이 중요함도 언급한다. 고하는 “19세기를 자유권 발전의 전성시대라면 20세기의 벽두 지금부터는 생존권 확충의 專力 시기”라는 역사인식을 갖고 있었다. 고하는 자유시장경제에 토대를 둔 자본주의가 불평등을 심화하는 병폐를 가져올 수 있고 대중의 생존권이 위협을 받으면 러시아에서와 같이 공산혁명이 발생하고 자유를 말살하는 독재가 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고하는 자유권과 생존권의 균형이 필요함을 인식했던 것이다:

“... 자유권이 없으면 철저히 개성의 능력을 발전할 수 없으며 또한 생존권이 없으면 협동적 최고문화를 완성할 수 없을 것이다. ... 과거 19세기의 극단적으로 발전된 자유권이 정치적으로는 모든 개혁을 단행하였으나 경제적으로는 생활상 기회균등을 파괴하였으며 계급적 관념을 도발케 한 것이 사실이었다. 이곳 자유발전권의 여폐(餘弊)를 광구(匡救)하기 위하여 자연적으로 사회 최후의 생존권이 절규되게 된 것이다.”

고하는 자유권과 생존권을 주창하는 “양대 사상이 상호 충돌되고 당착이 되는 것은 아님”을 역설한다:

4) 고하선생전기편찬위원회편, 『거인의 숨결』, 14-22.

5) 위의 책, 94.

6) 위의 책, 90-95.

“... 이 양대 사상은 조(鳥)의 兩翼과 車의 兩輪과 같이 호상제휴가 되어 발전하여야 될 것이다.” “현대의 자본계급의 독점된 경제적 권리가 생존권의 각성에 의하여 평등적으로 분배될 것도 必至의 운명이다 일로 보면 자유권은 정치적 생존권이며 생존권은 경제적 자유권이다.”

고하는 민생을 외면하지 않는 자유주의자였다. 그리하여 자유권과 생존권을 균형적 관점에서 파악하였다. 이렇게 보면 고하의 자유 개념은 개인이 자기 스스로를 지배하며 능동적으로 자아실현을 하는 적극적 자유(positive freedom to something)에 해당했다. 고하는 당대에 있어서는 진보적인 열린 자유주의자였다고 볼 수 있다.

1920년대에는 국내에서도 사회주의 사상이 확산되고 1925년에는 조선공산당도 창당되었다. 착취와 불평등의 현실을 강조하면서 사회혁명을 부르짖는 좌파의 영향이 나타나는 가운데 자유주의자인 고하는 식민지 조선의 실상과 변화하는 세계의 문제를 직시하는 사고를 갖고 있었다.

1926년 2월 발간된 『조선농민』 총3호에 실린 글에서 고하는 농촌청년들에게 “노동신성이라는 관념을 꼭 붙잡아” “노동하는 것을 최고 도덕으로 여기는 사람이 되어달라고” 당부하였다.⁷⁾ 그리고 고하는 백성의 대다수가 농민이고 그 가운데 상당수가 소작인으로서 피폐한 생활을 면하지 못하는 현실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기도 하였다. 1929년 1월 『조선지광』에 발표된 “소작입법의 필요”라는 글이⁸⁾ 그 좋은 예이다:

“소작인의 지위를 보장할 만한 어떤 방법을 세워야 할 것이다. ... 소작문제가 점점 심각화하여 그 영향이 농업생산의 소장을 좌우하게 된다면 이는 국가적 견지로 보아서 그대로 방임할 수 없는 일이요, 사회적으로 보아서도 어떻게나 해결치 아니하면 안 될 것이 아닌가! ... 지주 중에는 간혹 각성한 사람들도 없는 것이 아니지만 대다수는 완강하여 가렴주구(苛斂誅求)를 是事(是事)를 하는 자이니 만일 現狀과 같이 추진되는 때는 농촌의 피폐는 더욱 심각화하여 실로 중대한 영향을 招致(招致)케 할 것이다.”

3. 적극적 자유를 말했고 공산주의와는 선을 그었던 고하

고하가 일본에서 유학하던 1910년대 중반 일본의 지성계에는 자유민주주의와 더불어 이미 마르크스주의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다. 그러나 고하는 당시부터 일관적으로 마르크스주의에는 비판적인 입장을 유지하였다.⁹⁾

1920년대 이후 해외와 국내 독립운동가들은 러시아혁명 성공의 여파로써 공산주의 사상의 영향을 받게 되었다. 일제와 폭력적으로 대결하는 사회주의 혁명을 주창하는 세력과 민족의 실력배양을 우선적으로 강조하는 문화적 민족주의 세력 간에

7) 위의 책, 50.

8) 위의 책, 60-61.

9) 김학준, 『평전』, 68.

분열이 점차 확연하게 되었다. 이러한 좌우분열은 그 이후에도 줄곧 지속, 심화되었던 것이다. 민족이 처한 입장에 비추어 급진적 방법을 통해 제국주의로부터 해방을 성취하고 평등을 실현하자는 사상에 경도되는 지식인들이 적지 않게 되었다.

고하는 생존권을 고려하는 적극적이고 포용력 있는 자유주의자였는데 사회계급 간 불평등을 급진적 방식으로 철폐하고 재산은 공동 소유해야 한다고 주창하는 사상을 수용하지는 않았다. 자유주의자 고하는 사회민주주의라면 일단 점점의 여지가 있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사회민주주의는 부를 창출하는 메커니즘으로서의 자본주의를 수용하면서 국가의 재분배정책을 통해 점진적 방법으로 사회경제적 평등을 성취하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회민주주의는 개인의 기본권적 자유를 훼손하는 사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 식민지 조선에서의 사회주의적 행동가들은 사회민주주의보다는 다분히 마르크스주의와 레닌이 주도한 공산혁명에 크게 기우는 관심을 기울였다.

고하는 세계정세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갖고 있었고 장차 자본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가 공산주의 독재와 대결하는 시대가 올 것을 이미 1920년대부터 예견하였다. 고하는 1925년 7월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열린 범태평양기독교청년대회에 참석하고 돌아와 그해 8월과 9월 『동아일보』에 12회에 걸쳐 “세계대세와 조선의 장래”라는 논설을 발표하였다:¹⁰⁾

“세계대세의 조류는 확실히 지중해에서 대서양으로, 대서양에서 태평양방면으로 이동하여 오는 것이 과거의 사승(史乘)에 조(照)하여 소소역력(昭昭歷歷)한 사실이다. ... 자본주의의 모범인 미국과 사회주의 대표적인 赤露가 태평양을 격하여 양양 상대하여 발흥되는 것은 과연 불원한 장래에 그 무엇을 암시하고 있는가.”

고하는 미국을 “거대한 자본을 포용한” 국가로, 러시아를 “적나라하게 세계적으로 난봉 행세를 하는 적로(赤露)”라고 표현하였다. 고하의 판단에 의하면 결국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신봉하는 세력이 승리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따라서 조선민족이 걸어야 할 길은 자유민주주의일 수밖에 없었다.

1927년 2월 15일 우파 가운데 비타협적 민족주의 세력과 좌파의 항일 통일전선으로서 신간회가 결성되었다. 문화적 민족주의 또는 자강운동을 전개하는 고하로서는 신간회 출범에 소극적이었고 1928년 1월에 가서 경성지회에 입회하였다. 고하는 신간회 내에 있는 민족주의자들과 연합해야 한다고 보았기에 가입하였지만 좌파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불신을 가지고 있었다. 고하는 계급을 앞세워 민족을 분열시킬 것이 아니라, 민족이 단결하여 독립을 쟁취하는 것을 우선해야 한다고 믿었다.

4. 민족자강운동은 독립과 자유민주주의로 가는 길

일본 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고하는 교육과 언론을 통한 민족자강 운동에 헌신하

10) 위의 책, 193-198; 고하선생전기편찬위원회편, 『거인의 숨결』, 31-49. 고하는 1931년 6월에도 『東光』에 동일 제목의 논설을 기고하였다.

였다. 이는 민족독립을 향한 문화운동이자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민주주의식을 함양하는 과업이었다. 고하는 메이지대를 졸업하기 전해인 1914년 11월부터 인촌이 인수한 중앙학교에서 교편을 잡기 시작하여 유학을 완전히 마치고서는 본격적으로 교육에 몰두하였다. 1918년 만 28세 되던 해에 중앙학교 제10대 교장에 취임하였다.

고하는 중앙학교 활동 시절 3·1운동의 주역으로서 옥고를 치른 뒤 활동무대를 동아일보로 옮기게 되었다. 동아일보는 인촌의 주도로 고하가 옥중에 있던 1920년 창간되었다. 동아일보는 1) 조선민중의 표현기관임을 자임하고, 2) 민주주의 지지, 3) 문화주의의 제창을 내걸었다. 고하는 1921년 9월 동아일보의 제3대 사장으로 취임하였다. 이는 고하가 31세 되던 해였는데, 그 뒤로 동아일보가 폐간될 때까지 19년 동안 사장, 고문, 주필 등 여러 직책을 두루 맡으며 동아일보와 같이 하였다. 고하는 동아일보를 중심으로 하여 자강운동의 일환으로서 민립대학과 초·중등 교육기관 설립운동, 이충무공유적보호운동, 브나로드운동을 통한 농촌 진흥, 물산장려운동 등을 적극 추진하였다. 이는 대체로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문화적 독립운동이었지만 1926년에는 필화사건으로 투옥되기도 하였다.

근대화 이론이 설파하는 바와 같이 민족자강운동은 국가 발전과 자유 민주주의를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있었다. 교육과 언론을 통한 계몽은 조선민족의 지적, 과학적, 기술적 능력을 증대시키고 또 산업 진흥과 물산장려운동은 조선민족의 경제적, 물질적 생활을 향상시키게 되면 새로운 지도층의 형성을 가져와 민족의 독립과 민주주의식 함양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었다.¹¹⁾

1921년 10월 15일 동아일보 제3대 사장 취임사에서 고하는 동아일보가 “2천만 민중의 公議 公論을 표현하는 기관”임을 선언했다.¹²⁾ 고하는 1931년 11월 『신동아』 창간사에서도 신동아는 “어느 일당일파의 선전기관이 아니”고 “名實이 다 같은 조선의 公器”라고 천명하였다.¹³⁾ 결국 고하의 문화활동은 민족독립과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했던 것이다. 정치활동이 자유롭지 않은 일제 지배 하에서 문화라는 이름의 정치활동을 펼친 것이다.¹⁴⁾ 고하는 국내에서 “아직 무용한 희생을 피하기 위해서” 합법적인 문화활동으로 “민중의 자각”을 위해 노력한다고 하였다. 고하는 수시로 일제의 언론탄압에 봉착하였다. 1926년 3월 5일자 『동아일보』에 국제농민회 본부가 보내 온 전보문을 게재토록 하여 필화를 당하였다. 이 문건은 3·1운동을 ‘위대한 날’로 찬양하고 “자유를 위하여 죽은 이에게 영원한 영광이 있을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동아일보는 조선총독부로부터 정간처분을 받고 당시 주필이던 고하는 그 해 11월 서대문형무소에 투옥되었다가 이듬해 2월에 출옥했다. 출옥 후 1927년 10월 두 번째로 동아일보 사장에 취임하였다.

11) 김학준, 『평전』, 158.

12) “본보의 과거를 논하여 독자 제씨에게 일언을 기하노라.” 고하선생전기편찬위원회편, 『거인의 숨결』, 24-26.

13) 위의 책, 80.

14) “기자=그러면 민족운동의 금후의 코스는 어떠하여야 하겠습니까?

송=정치운동의 기본운동을 함에 있지요. 그 준비운동으로 문화운동을 부득이 일으켜야 하겠지요.” 이는 1932년 4월 간행된 『삼천리』 총25호, “무풍적인 현하 국면타개책-문화운동과 소비운동에 주력”이라는 대담 기사의 일부이다. 위의 책, 87-89.

1936년 8월 동아일보는 손기정 선수의 일장기 말소 사진을 게재하였다. 동아일보는 다시 정간처분을 당하고 1937년 6월 1일 9개월여 만에 복간되었으나 1940년 8월 마침내 폐간되었다. 고하는 일본 패망 후인 1945년 12월 세 번째로 동아일보 사장에 취임하여 동아일보를 重刊하였다.

탄압이 극심해졌던 일제 말기 고하는 일제에 협력하지 않고 해방을 기다렸다. 그러면서 1944년 말 단파방송을 청취한 설의식(薛義植)을 통하여, 그리고 1945년 5월경에는 일본 외무성에 근무하던 장철수(張徹壽)로부터 막바지에 이른 2차대전과 연합국 동향에 관하여 상세한 정보를 얻었다.¹⁵⁾

5. 해방정국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고하의 실천 투쟁

1945년 8월 15일 해방의 날부터 12월 30일 고하가 흉탄을 맞아 쓰러지기까지 불과 4개월여, 곧 1백 37일의 기간에 한민족은 격동의 회오리로 서서히 빨려 들어가고 있었고 앞날의 운명이 매우 불확실했다. 이런 중대한 국면에 처하여 민족주의자인 동시에 자유민주주의자인 고하는 일제시기에 그러했던 것처럼 일관되게 원칙을 지키며 일제와 타협하지 않고 좌파와 선을 긋고 정세를 꿰뚫어 보면서 신중하게 행동하였다.

일제의 항복 직전 총독부가 행정권의 부분 이양을 교섭하고자 했으나 고하는 단호하게 거절하였다. 몽양 여운형, 민세 안재홍과는 이 점에서부터 달랐다. 항복이 임박한 일제와 타협하여 그 지배를 지속하게 되면 진정으로 국권을 회복하고 정부를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고하는 승전국 연합국으로부터 이양 받아야 정당한 것이라고 믿었다. 또한 이양 받는 주체는 해외의 독립지사 또는 임시정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였다. 고하는 임정이 3·1운동의 연장선상에서 조선8도의 대표들이 집결해 출범하였기에 민족사적 정통성을 계승한 유일합법적 망명정부로 해석하였다. 그리고 고하는 대내적으로 민족대표기구인 국민대회 또는 민중대회의 절차를 밟아 민주적 정통성을 확보하면서 행정권을 이양 받아야 한다는 것도 원칙으로 삼았다.

몽양은 8월 15일 아침 조선총독부의 교섭에 응해 그 날 저녁으로 서둘러 16일에는 조선건국준비위원회를 공식적으로 발족시켰다. 몽양은 건준 출범 시 안재홍, 김병로와 이인 등 중도와 우파 민족주의세력의 건준 참여를 이끌어 냈고 17일 고하에게 재차 건준 참여를 직접 요청했으나 고하는 몽양에게 자중하길 요청하였다. 고하가 특히 문제시 한 것은 몽양이 공산주의자들에게 휘둘리고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고하의 예견과 다름없이 9월에 들어 건준의 내용은 깊어졌고 안재홍이나 우파 인사들이 탈퇴하였다. 9월 6일 박헌영을 위시한 공산주의 세력이 주도적 역할을 하여 건준은 돌연 인민공화국으로 변질되었다. 고하가 좌시할 수 없는 상황이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던 것이다.

15) 김학준, 『명전』, 276-279.

고하는 인공에 대항하여 중경임시정부 지지, 민족역량 총집결을 위한 국민대회 개최를 주장하며 우파세력 통합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고하는 소련이 주도하는 공산주의 아래서는 민족과 국가가 번영할 수 없다고 보았으며, 건준이 인공에 이르러서는 공산주의자들의 발호를 방관할 수 없었다. 9월 7일 고하의 주도아래 국민대회 준비회가 결성되었다. 그 취지서는 "... 우리 전국민의 당면한 관심사는 우선 국민의 총의로서 우리 재중경 대한임시정부의 지지를 선서할 것, 국민의 총의로써 연합 각국에 사의를 표명할 것, 국민의 총의로서 민정수습의 방도를 강구할 것 등"을 천명하였다.¹⁶⁾

또한 고하는 한국민민주당 창당에 나섰다. 7일 한민당발기회에 이어 16일 창당대회가 성공리에 개최되었다. 이 대회의 선언은 임정봉대를 재확인하고, "대중 본위의 민주주의"에 바탕을 둔 자주독립 국가 건설의 의지를 밝혔다.¹⁷⁾ 21일 총회 위임에 따라 당조직이 확정되었는데 당수제 또는 최고위원제 대신 1도 1총무의 8명 총무제가 채택되어 고하는 사실상의 당수인 수석총무로 추대되었다.

한민당은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 구현을 표방하는 정당이었다. 이러한 정당이념을 비판적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한민당이 부르주아 계급에 기반을 둔 보수·반공 정당으로서 일제 하 친일세력에 대한 척결은 내세우지 못하였고 토지개혁과 기간산업의 국유화 정책을 명시적으로 제시하지 못했음을 지적한다. 그런데 한민당의 5대 강령에는 "주요 산업의 국영 또는 통제관리" "토지제도의 합리적 재편성"을 각각 독립된 항목으로 포함하고 있었다. 우파 정당으로서 공익을 위한 경제활동이나 불합리한 농지제도의 개선 문제를 외면하지 않았다. 해방 직후 정국과 한민당에 관하여 연구한 심지연, 진덕규, 김학준 교수 등은 자유민주주의 사상을 지닌 인사들이 한민당으로 결집하여 좌경화하는 정국의 흐름을 막아 정치적인 균형을 이루도록 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¹⁸⁾

고하를 비롯한 한민당 수뇌부는 인공과 맞서 싸우면서 자유민주 정부를 수립하기까지 잠정적인 훈정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이에 입각하여 미군정에 협력하기로 하였다. 10월 16일 귀국한 이승만은 반공·반소·반좌파 입장을 명백히 하였고 그 때문에 고하와 한민당은 이승만과 제휴를 확고하게 할 수 있었다.¹⁹⁾

11월 하순과 12월 초 김구를 비롯한 임정요인들도 귀국하였다. 임정봉대론을 내세웠던 고하와 한민당은 임정 세력을 확대하였다. 하지만 임정 세력이 '국내인사숙정론'을 거론하면서 고하와 임정지도자들 사이에는 차츰 간격이 생기게 되었다. 12월 중순부터 하순까지 모스크바에서 열렸던 미·영·소 3개국 외무장관 회담의 결정

16) 고하선생전기편찬위원회편, 『거인의 숨결』, 174-175.

17) 한민당의 5대 강령은 다음과 같았다: "1. 조선민족의 자주, 독립독가 완성을 기함. 2. 민주주의 정체 수립을 기함. 3. 근로대중의 복리증진을 기함. 4. 민족문화를 昂揚하여 세계문화에 공헌함. 5. 국제현장을 준수하여 세계평화의 확립을 기함." 아울러 8대 정책을 열거하면 "1. 국민기본생활의 확보. 2. 호혜평등의 외교정책 수립. 3.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신앙의 자유. 4. 교육 및 보건의 기회균등. 5. 重工主義의 경제정책 수립. 6. 주요 산업의 국영 또는 통제관리. 7. 토지제도의 합리적 재편성. 8. 국방군의 창설"이었다. 위의 책, 176-177.

18) 김학준, 『명진』, 321-324 참조.

19) 위의 책, 328-330.

이 28일과 29일 국내에 알려졌다. 합의문 전모가 아니라 그 결정 가운데 신탁통치 조항만 크게 부각되어 전해졌다. 임정세력은 미군정과의 충돌을 불사하는 강경한 반탁 입장을 즉각 표명하였다. 고하는 미군정과 충돌을 피하면서 신중하게 반탁하자는 입장을 갖고 있었다. 28일 밤부터 29일 새벽까지 고하는 경교장에서 격론을 벌였다. 고하는 결코 찬탁을 주창하지는 않았다. 29일 고하는 국민대회준비회 위원장 이름으로 “최후까지 투쟁하자”라는 담화를 내고 반탁의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미군정을 정면으로 부인한 임정 지도자들과 달리 미군정과 협력하면서 독립 정부를 수립하는 방법론을 주장했던 것이다.²⁰⁾ 다가올 새해 벽두부터 정국이 찬탁과 반탁으로 나누어져 요동치기 직전에 고하는 12월 30일 새벽 55세의 나이로 암살되는 비운을 맞았다. 건국 과정에서 중추적 역할을 해낸 큰 인물, 고하가 안타깝게 쓰러지고 말았다.

고하를 비롯한 한민당이 미군정에 협력하여 남북한이 각각 단독정부를 수립하게 되는 데에 일조했다는 일부 비판론자들이 있다. 그런데 남북분단의 원인을 따지면서 미군정, 한민당, 그리고 이승만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은 우선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 보아서도 타당하지 않다. 이정식, 이지수 교수 등이 소련 붕괴 이후 공개된 구 소련의 자료를 바탕으로 수행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스탈린은 이미 1945년 9월 20일 소련이 점령한 북한 지역에 친소 정부를 수립하라는 지명을 내렸다. 소련점령군은 북한에 친소 단독정부를 수립하는 계획을 신속하게 진행시켰다. 국제적으로 한반도는 점차 확대되는 미소대결의 중심 무대가 되고 있었다. 남한에서는 좌파 세력의 영향력이 확대되어 건국과 정부수립을 두고 우파와의 갈등이 점차 고조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남한에 주둔하여 권력을 장악하고 있고 자유민주주의와 반공을 내세우는 미국의 군정을 일거에 배척하기 보다는 이에 협력하면서 국가를 건설하려고 했던 고하의 생각은 매우 현실적이고 신중한 판단에 입각해 있었다.

6. 맺는 말

1989년부터 1991년까지의 기간에 소련과 동중유럽에서는 마르크스-레닌주의가 몰락했다. 자유와 효율성은 물론 평등도 실현하지 못한 공산독재 국가는 사면초가에 직면하고 자유민주주의 앞에 무릎을 꿇었다. 프란시스 후쿠야마 같은 사람은 이를 ‘역사의 종말’이라고까지 말하였다. 한반도 남쪽의 한국 역시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로써 공산독재의 북한과 체제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게 되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대한민국은 총량으로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되었고 정치민주화에도 성공했으며 국제적으로 2010년 G20 정상회의를 주최하는 위상을 확보하였다. 특히 한국 민주주의는 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확산되는 물결을 타고 1980년대 말 권위주의 독재로부터 벗어나 괄목할만한 발전을 이루어냈다. 독재시기의 한국 정치를 보고 어떤 외

20) 특히 고하송진우선생기념사업회 홈페이지(www.goha.or.kr)에 올려 있는 이완범, 이철순 교수의 글 참조.

국 기자는 한국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쓰레기통에서 장미가 피어나는’ 것에 빗대어 표현하기까지 했다. 그런데 ‘이코노미스트(*Economist*)’지 연구팀은 2008년 9월 기준으로 한국의 민주주의 수준을 167개 국가 중 28위로 평가했다.

만약 남한에서 자유민주 우파 세력이 공산 좌파 세력에 압도되어 남한이 공산화 되었다면 한민족은 21세기에 접어든 지금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총체적인 체제 이행의 시행착오와 진통을 겪고 있을 것이다. 한민족에게는 과거나 현재 그리고 미래에도 자유민주주의의 길이 正道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한반도에서 통일국가를 이루어내는 중대한 과업을 위해서 이 점은 큰 교훈이 아닐 수 없다.

21세기 초 이 시점에서 자유민주주의를 믿고 이를 실천하려고 했던 고하의 행적을 회고해보면서 고하가 선각자적인 지도자였다는 것을 다시 느끼며 숙연해 지지 않을 수 없다.

박찬욱 :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졸업, 미국 아이오와대학교 정치학 박사.

한국정치학회 회장 역임.

현재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